

기술표준동향

제32차 ISO 총회 동향 보고



박 응 조
국제표준협력과 연구사
02-509-7399

올해 9월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32차 ISO 총회에는 전세계 101개국 350여명의 표준 전문가가 참가하였다.

금번 총회를 통하여 에너지와 기후변화 문제가 국제표준화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고,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다른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에너지효율 향상 및 신재생에너지보급을 위한 국제표준을 적극 개발하기로 하였다.

에너지 문제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유용한 수단으로서 국제표준을 활용하기로 중점 논의하였다.

동 ISO 총회에서 IEA 사무총장의 발표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50년까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으로 낮추기 위해 현재 추세대로라면 '30년에 41Gt이 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6Gt 수준으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건물, 가전, 조명, 수송, 산업 등에서 에너지 효율이 25% 이상 높아져야 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현재의 18%에서 40%로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하여 각국 전문가들은 관련 표준 개발 노력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고, ISO는 에너지효율과 기후변화문제를 다룬 새로운 TC의 설립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한편, IEC 회장인 Jacques Regis는 현재 지구상 16억 명의 인구가 아직도 전기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90년보다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오히려 1.5% 줄었다는 점에서 값

싼 신재생에너지원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표준의 개발을 촉구하였다.

한국 대표단장이며 ISO 이사인 기술표준원 남인석 원장은 ISO의 에너지효율과 기후변화대응 표준화정책이 우리의 국가 어젠다인 녹색성장의 성과를 반영할 좋은 계기가 될 것임으로, 국내 산·학·연 전문가와 협조하여 에너지표준 제안, 표준 이행 조사 등 이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동 총회에서는 표준의 경제적 효과도 주요 의제였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표준은 세계무역량의 80%(13.5조 달러), 독일 GNP의 1%(연락 160억 유로), 프랑스 GDP 증가의 25%에 영향을 미치며, 호주 R&D 결과지식을 5% 증가시킨다. ISO는 ISO 차원에서 표준의 경제적 영향력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각 회원국에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대표단은 총회 기간 중 미국, 일본, 캐나다 등 표준선진국과 국제표준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하였고, 잠재시장인 브라질, 남아공과 양자접촉을 갖고 우리 표준 및 적합성 평가체제의 확산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기술표준원은 금번 제32차 ISO 총회와 양자접촉의 후속조치로서 에너지 표준화 전략 수립, 한미 표준포털 개통, ISO 전략계획 한일 공동대응, 캐나다에 전문가 파견 및 남미,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망 구축 등 우리의 위상에 맞는 표준협력 모델을 정립할 계획이다.



제32차 ISO 총회(가운데 ISO회장(Alan Morrison), 오른쪽 ISO사무총장 (Rob Steele))

| 기술표준 2009.11